

SK네트웍스, 철광석 1000만톤 확보

캐나다 CLM으로부터 10년간 구매 ... 국내·중국 철강기업 공급 확대

SK네트웍스는 캐나다의 철광석 생산기업인 CLM으로부터 10년간 1000만톤의 철광석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창규 SK네트웍스 사장은 명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CLM의 리처드 웨스넬 사장과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월20일 발표했다.

철광석 1000만톤은 자동차 6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며, CLM은 세계 10위에 드는 철광석 생산기업으로 철(Fe) 함유량이 66% 이르는 고품질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확보된 물량의 50%를 한국과 중국의 철강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동시에 수요처에서 생산한 제품도 유통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물량은 중국의 철광석 물류 중심지에서 인디아의 저품질 철광석과 블렌딩해 가치를 증대시킨 후 중국 제철소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져 SK네트웍스는 연간 500만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중국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2025년까지 연간 5000만톤의 철광석 및 1000만톤의 철강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철광석 및 철강 생산용 원료탄의 개발·확보, 운송, 블렌딩, 완제품 가공 등 조강을 제외한 철강 관련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0>